

고려 煌丕昌天銘鏡의 도상과 불교적 해석

정수희*

- I. 머리말
- II. 고려 황비창천명경의 현황 및 유형 분류
- III. 도상적 특징 및 제작 시기
- IV. 불교적 해석과 용도
- V. 맺음말

I. 머리말

고려시대에는 주변국과의 활발한 교역을 통해 다양한 동경이 유입되었고, 이를 再鑄하거나 倣製하는 등 많은 동경이 제작되고 유통되었다. 현재 국내외 박물관에 소장된 고려 동경은 대략 2,000여 점에 달하며, 동경의 장식 문양도 100여 종이 넘는다. 그 중 황비창천명경은 현재까지 확인된 고려 동경 가운데 단일 문양으로는 비교적 많은 수량에 해당하며, 처음 제작된 중국에서보다 오히려 고려에서 더 많이 발견되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황비창천명경이란 거울 뒷면에 ‘煌丕昌天’이란 전서체 명문이 있는 동경을 말하며,¹ 이 글귀는 ‘밝게 빛나며 크고 창성한 하늘’을 의미한다. 동경의 문양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을 태운 한 척의 배가 수중짐승이 출몰하는 거친 바다를 향해하는’ 모습으로 표현되며, 어떤 이야기의 극적 장면을 묘사한 듯 역동적이면서도 섬세하다. 또한 ‘十王’이라는 글자가

* 부산박물관 학예연구사

¹ 이 동경에 대한 명칭은 煌丕昌天鏡, 煌丕昌天航海文鏡, 煌丕昌天渡海文鏡, 煌丕昌天海船文鏡 등 소장기관마다 모두 다르다. 유물 명칭은 유물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가 종합되도록 재질·기법·명문·문양·기형 등을 명기해야 하지만, 이를 모두 표기하면 지나치게 길어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으므로 본고에서는 황비창천명경으로 칭한다.

새겨진 작품도 확인되어 동경의 용도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낸다.

현재 고려 황비창천명경에 대한 연구는 문양을 중심으로 한 유형 분류라든지 불교 및 항해의 안전과 관련되어 제작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주로 언급되어 왔다.²

본 논문에서는 고려 황비창천명경의 현황을 파악하여 유형을 분류하고, 도상적 특징 및 제작 시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도상 해석을 통해 황비창천명경의 불교적 요소와 용도를 집중적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II. 고려 煌丕昌天銘鏡의 현황 및 유형 분류

고려 황비창천명경은 중국 宋·金代 煌丕昌天銘鏡에서 기원한 것으로,³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한 국내 기관에 59점, 국외 기관 12점 등 대략 71점이 확인된다(참고 자료 1).

황비창천명경의 평면 형태는 팔릉형과 원형이며, 65점이 팔릉형, 나머지 6점은 원형이다. 크기는 대략 지름 14.5~24.4cm 정도이며, 제작 방법에 따라 밀랍이나 흙·돌로 만든 틀을 이용하여 原形으로 만들어낸 原鏡, 이를 다시 부어 만든 再鑄鏡, 본떠 만든 倣製鏡으로 나눌 수 있다. 고려 황비창천명경의 경우 꼭지가 납작하며 문양의 세부가 흐리고 무딘 것이 많은데, 이는 원래의 동경을 다시 부어 만든 재주경이기 때문이다. 또한 문양의 정교성에서 많은 차이를 보여 여러 번 되부어내는 방법(踏反法)으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⁴ 한편 원형의 황비창천명경 중에는 꼭지가 둥글고 緣部가 깊으며 마치 회화를 보는 듯

2 고려 황비창천명경에 대한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高西省 著·윤보경 역, 『韓中 양국 출토 航海圖紋銅鏡 考察』, 『미술자료』 63(1999), pp. 33-46; 黃貞淑, 『高麗 銅鏡의 研究-編年試圖를 위한 基礎研究-』(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논문, 2000), pp. 153-156; 李蘭暎, 『高麗鏡 研究』(신유출판사, 2003), pp. 322-326; 黃貞淑, 『高麗中·後期 思想을 통해 본 銅鏡 文樣의 象徴的 研究』(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논문, 2006), pp. 118-128; 『고려동경, 거울에 담긴 고려 사람들의 삶』(국립중앙박물관, 2010), pp. 32-37; 하정숙, 『韓·日 銅鏡文化의 사머니즘적 성격에 관한 연구』(한양대학교 박사논문, 2010), pp. 45-46; 朴珍瓊, 『金系 高麗鏡의 제작과 유통』, 『美術史學研究』 279·280(2013), pp. 51-54; 장석오, 『古代 佛典에 나타난 마카라 문양의 系統과 意味』, 『불교미술사학』 16(2013), pp. 43-44; 安京淑, 『高麗 銅鏡 研究』(한양대학교 박사논문, 2015), pp. 107-109.

3 지금까지 확인된 고려 황비창천명경이 71점인 반면 중국 황비창천명경은 10여 점에 불과하여, 황비창천명경은 고려의 독자적인 동경이며 고려에서 중국으로 유출된 것이라 보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황비창천명경 중 S자형으로 크게 굽이치는 파도라든가 꽃잎 모양의 파도 거품 표현은 중국 宋·金代 航海文鏡, 吳牛喘月文鏡 등에서도 확인되는 특징으로, 황비창천명경은 중국에서 기원하여 고려로 유입·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4 답반법은 원래의 동경을 위와 아래의 주물토에 눌러서 틀을 뜬 다음 두 개의 틀을 합쳐서 용해한 용동을 부어 세부를 다듬는 방법이다. 이 때문에 원래 동경보다 문양이 흐리고 무디어지기 마련이며, 또 이 과정 중에 문양을 조금 다듬거나 지우기도 한다. 대량생산이 가능한 방법으로 고려경에서 많이 응용하는 방법이다(이 난영, 앞의 책, p. 30).

섬세하게 새겨진 사례도 있다.

현재 남아 있는 고려 동경은 일제강점기에 도굴되어 전세되다가 박물관으로 유입된 것이 많은 편이며, ‘고려 고분’, ‘개성 부근’으로 출토지를 표기한 예가 많아 제작 시기를 알 수 있는 정보는 부족한 편이다. 황비창천명경 역시 마찬가지로서 현재 출토지가 알려진 것은 5점에 불과하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 시행 뒤 매장문화재로 신고된 4점(춘천시 삼천동 산 11-2 출토품, 충주시 종민동 출토품, 부안군 봉덕리 출토품, 논산시 취암동 67 출토품)과 2011년 정식 발굴조사로 확인된 1점(청주 울랑동 132호 토광묘 출토품)이다.

고려 황비창천명경은 문양 구성의 변화, 문양의 유무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바다(海)·배(舶)·물고기(魚)·용(龍) 등으로 이루어진 海舶魚龍文鏡, 여기에 日像과 月像의 새로운 도상이 추가된 日月海舶魚龍文鏡, 그리고 문양 없이 ‘황비창천’ 글귀만이 부각된 素文鏡이 있다.

첫 번째, 해박어룡문경(도 1)은 현재 67점 정도가 남아 있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며 형태는 원형과 팔릉형이 있다. 원형이 두 점(국립전주박물관 소장품 1점, 충주 울랑동 132호 토광묘 출토품 1점), 나머지 65점은 모두 팔릉형이다. 크기는 대략 16~17cm 정도로 거의 비슷하며, 대부분 꼭지가 납작하며 문양이 흐리고 무딘 편이다.



팔릉형, 지름 17.2cm
국립중앙박물관(구입2198)



원형, 지름 16.7cm
국립전주박물관(덕246)

도 1 해박어룡문경

문양 구성은 먼저 꼭지 위쪽에 전서체의 황비창천 네 글자가 2행 2열로 배치된다. 바다 가운데에는 커다란 배 한 척이 떠 있으며, 배의 이물(船首)과 고물(船尾), 뱃집(棚屋) 등에는 여러 인물이 타고 있다. 배 앞쪽에는 커다란 용 한 마리가 구름에 둘러싸여 있고, 크게 출렁이는 파도 속에서는 마카라(摩竭魚)⁵·大魚 등 수중짐승 4마리가 머리를 내밀고 있다. 이 유형은 중국 송·금대 황비창천명경과 똑같은 문양 구성으로 중국에서 유입되었거나 그것을 재주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일월해박어룡문경(도 2)은 황비창천 명문이나 배·마카라·대어 등 기본 도상은 해박어룡문경과 유사하지만 황비창천 명문 주위에 명문곽이 생기고 일상과 월상이

⁵ 마갈어는 산스크리트어로 마카라(Makara)라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장석오, 앞의 논문, p. 39 참조.

추가된 점이 다르다.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점은 섬세한 조형성으로, 부드럽게 넘실대는 파도와 인물들의 역동적인 자세, 뱃집의 사실적 표현 등이 마치 회화를 보는 듯 사실적이다. 일월해박어룡문경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대구박물관 소장품 단 2점만 알려졌지만, 원형에 24cm 이상의 대형이라는 점과 황비창천 명문 사이에



지름 24.4cm
국립대구박물관(턱3194)



지름 24.1cm
국립중앙박물관(턱4927)

도 2 일월해박어룡문경

새겨진 ‘十王’의 글귀 등에서 차별화된 특징을 보인다. 또한 문양이 해박어룡문경과 완전히 반대로 배치된 점도 특징이며 중국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 형식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일월해박어룡문경은 고려만의 독창적인 原鏡으로 이해된다.

마지막은 동근 거울 뒷면에 문양 없이 황비창천 네 글자만을 배치한 소문경(도 3)이다. 이 유형 역시 중국에는 없고 고려 동경에서만 보이는 형태이다. 2행 2열로 배치된 황비창천 네 글자를 한 단위로 하여 상하좌우 네 방향으로 배치한 것(도 3 左)과 황비창천 네 글자를 각 1자씩 상하우좌 순으로 양주한 것(도 3 右)이 있으며, 해박어룡문경과 일월해박어룡문경에 비해 크기가 작은 편이다.



지름 14.9cm
숙명여대박물관(sm2519)



지름 14.5cm
승실대박물관(IB1443)

도 3 소문경

지금까지 고려 황비창천명을 해박어룡문경, 일월해박어룡문경, 소문경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고려의 황비창천명경은 출토지나 제작 시기가 알려진 것이 거의 없어 이 세 유형의 선후 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해박어룡문경의 경우 중국 송·금대 동경에서도 확인되므로 가장 선행하는 유형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이 고려로 유입·확산되는 과정에서 일월해박어룡문경과 소문경이 새롭게 창안된 것으로 보인다. 황비창천 글귀만이 있는 소문경은 맨 마지막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미 고려인들이 황비창천의 의미를 알고 길상적인 글귀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Ⅲ. 도상적 특징 및 제작 시기

이 장에서는 황비창천명경의 도상적 특징을 부분별로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하며, 그 특징과 출토지 등을 통해 대략의 제작 시기도 추정해 보고자 한다.

1. 도상적 특징

1) 황비창천 명문

황비창천 명문(도 4)은 거울 뒷면 상단에 ‘煌’, ‘丕’, ‘昌’, ‘天’ 네 글자가 2행 2열로 배치되며, 첫 글자인 煌은 반전되어 새겨졌다.⁶ 각 글자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煌은 밝게 빛나다, 밝다, 환하다, 丕는 크다, 昌은 창성하다, 번창하다, 天은 하늘을 말하며, 이는 곧 ‘밝게 빛나며 크게 창성한 하늘’이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해박어룡문경



일월해박어룡문경

도 4 황비창천 명문

명문은 해박어룡문경·일월해박어룡문경·소문경 등의 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전서체이며, 글자의 형태도 거의 비슷하다. 다만 일월해박어룡문경에는 명문곽이 생기고, 소문경(도 3 右)은 황비창천 네 글자를 상·하·우·좌로 따로 배치하는 등의 변화만 지적된다.

2) 배

배(도 5)는 황비창천명경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안에 탄 인물을 드라마틱하게 묘사하는 등 가장 중심적인 도상으로 이해된다. 길이는 약 10발(1발은 양팔을 벌린 길이)쯤 되는 中船 정도의 크기이다.⁷ 배 중앙에는 큰 돛대 하나가 여러 개의 버팀줄로 고정되어 서 있

⁶ 중국에서는 예부터 글자를 반전시키거나 거꾸로 배치하는 풍습이 있는데, 고려 동경 중에도 長子富貴銘八菱形鏡(덕2438,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은 첫 글자인 ‘長’만을 반전하여 새겼다.

⁷ 민계식 외 2인, 『한국의 전통선박, 韓船』(한림원출판사, 2012), p. 77.

고, 돛은 바람이 거친 듯 여러 겹으로 접혀 날리고 있다. 배 위에는 창이 2개인 뱃집이 있고 창안으로 1~2명의 인물이 보인다. 이물과 고물에도 여러 인물이 보이는데, 배에 탄 인물은 모두 8명이다. 인물 표현은 해



해박어룡문경



일월해박어룡문경

도 5 황비창천명경의 배

박어룡문경의 인물이 머리가 크고 약간 둔중하게 표현된 반면, 일월해박어룡문경의 인물은 보다 구체적이고 동적인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뱃집의 형태는 해박어룡문경은 나무판을 가로로 쌓아서 만들었고, 일월해박어룡문경에서는 마치 돛자리를 짠 듯 촘촘하게 엮은 모습이다.⁸

3) 용

용(도 6)은 구름에 둘러싸인 채 입을 크게 벌리고 배를 잡으려 하는 듯 한쪽 발을 내민 모습이다. 해박어룡문경의 용은 회오리처럼 말린 구름이 몸 윗부분만을 감싸면서 굽은 선으로 묘사된 반면, 일월해



해박어룡문경



일월해박어룡문경

도 6 황비창천명경의 용

⁸ 황비창천명경의 배는 완도선, 십이동파도선 등의 발굴 선박과 비교하여 돛대가 1개인 점을 들어 고려의 배로 판단하기도 한다. 그러나 北宋 張擇端의 《清明上河圖卷》을 보면, 동일 그림 내에 돛대 1개인 것과 2개인 것이 공존하여 돛대 수는 배의 규모와 상관있는 듯하다. 발굴된 고려의 배는 底板, 外板, 명에와 駕龍木, 호룡, 닛 등 대부분 배의 하부를 이루는 부재들로 중국·일본의 배와 달리 바닥이 平底를 이룬 독특한 형태임을 알 수 있는데, 황비창천명경의 배는 하부가 바다에 잠겨 있어 그러한 특징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일월해박어룡문경의 경우, 고물의 좌우 외판이 후방으로 뻗어 경사진 모습이며, 뱃집 형태도 서궁의 『고려도경』 중 고려 관선은 뜰으로 지붕(돛개)을 덮었다고 서술된 것과 유사하여 고려 배의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박어룡문경에서는 몸 전체를 둘러싼 구름에 가는 세선으로 매우 섬세하게 표현하였다.

4) 수중짐승

동경의 좌우 상단 바다 속에는 저마다 독특한 모습의 수중짐승 4마리(도 7)가 머리를 내밀고 헤엄쳐 가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배 이물 쪽에는 2마리의 큰 물고기가 보이는데, 해박어룡문경에서는 각기 특징적인 모습으로 표현된 반면, 일월해박어룡문경에서는 나란히 헤엄치는 모습이다. 배 고물 쪽에는 긴 코가 이마 쪽으로 둥글게 감기고 날카로운 이빨과 지느러미가 있는 마카라와 위턱이 새 부리처럼 길게 나온 물고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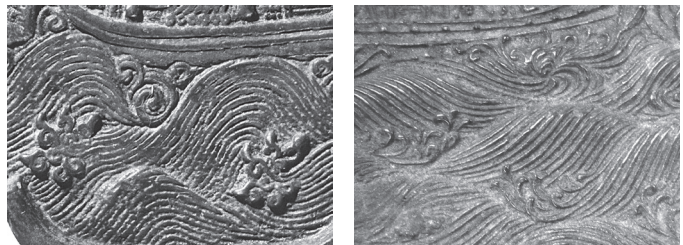
해박어룡문경(좌: 이물 쪽, 우: 고물 쪽)

일월해박어룡문경(좌: 이물 쪽, 우: 고물 쪽)

도 7 황비창천명경의 수중짐승

5) 파도

바다는 수중짐승들의 조화로 거세게 출렁이는 모습이며 파도(도 8)는 물결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표현하였다. 해박어룡문경에서 파도는 크게 S자를 이루고 꽃잎모양 파도 거품을 내뿜고 있다. 일월해박어룡문경에서는 물결이 마름모상을 이루며 한층 부드럽게 넘실대며, 파도 거품은 끝이 약간 말려 올라가는 등 보다 사실적으로 표현된다.



해박어룡문경

일월해박어룡문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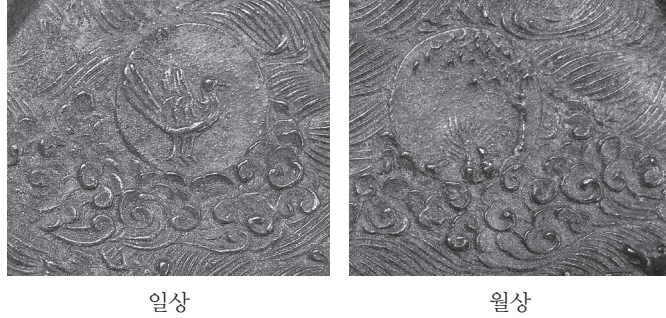
도 8 황비창천명경의 파도

6) 日像과 月像

일월해박어룡문경에는 명문 좌우측 아래로 일상과 월상(도 9)이 새겨져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만 보이는 새로운 도상이다. 일상은 동근 원 속에 세 발 달린 삼족오가 있고 그 아래를 卷雲文이 감싸고 있다. 월상 역시 권운문에 둘러싸인 동근 원 속에 계수나무 아래 절구 찻는 토끼와 두꺼비가 있는 모습이며, 절구 속에서 상서로운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다.⁹⁾

삼족오가 든 일상, 절구 찻는 토끼와 두꺼비

가 있는 월상은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부터 표현됨은 잘 알려져 있다. 이는 고려시대에도 계속적으로 표현되는 형식으로, 고려시대 개성 <현화사 탑비>(1021)와 원주 <법천사 지광국사현묘탑비>(1085)의 상단에 새겨진 일상과 월상, 그리고 龍樹殿閣文鏡(도 10)에 황비창천명경과 같은 유사한 월상이 표현되고 있어 고려적인 문양으로 발전한 것으로 이해된다.



도 9 일월해박어룡문경의 일상과 월상



도 10 용수전각문경(턱418, 지름 21.6cm, 국립대구박물관) 속 토끼와 두꺼비

⁹⁾ 원래 일상은 동쪽(오른쪽)에 배치되고, 월상은 서쪽(왼쪽)에 배치되어야 하지만, 현재 일월해박어룡문경에서는 반대로 새겨졌다. 이는 새로운 도안을 만들 때 기존 동경을 참조하여 새기는 과정에서 문양의 반전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지만, 황비창천 명문이 반전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다만 고려 용수전각문경의 경우 중국의 것과 문양이 완전히 반대로 배치되고 있어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동경 제작 방법을 연구하면서 이 문제를 재고해 보아야 한다.

2. 제작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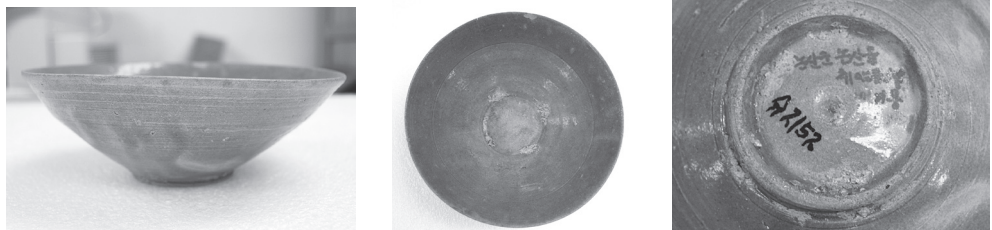
고려 황비창천명경 중 출토지가 알려진 것은 전체 71점 중 5점(도 11)에 불과하다. 정식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은 청주 울량동 출토품 단 1점뿐이며, 나머지 4점은 발견 매장문화재로 신고된 것이다. 5점의 황비창천명경은 모두 해박어룡문경에 속한다. 이 가운데 춘천시 삼천동 산 11-2에서 출토한 황비창천명경은 崇寧通寶(1102~1106)가 반출되었고, 청주 울량동에서는 토광묘 내에서 天聖元寶(1023~1031)와 熙寧元寶(1068~1077), 崇寧重寶(1102~1106)가 함께 출토되었으며, 논산시 취암동 67에서는 12세기 전반경으로 편년되는 청자발(도 12)이 함께 나온 바 있다. 동경의 제작 시기와 사용 시기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3점만 가지고 편년을 하기는 어렵지만, 해박어룡문경은 대략 12세기 경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11세기 후반경 이미 제작되었을 가능성도 있다.¹⁰

한편, 일월해박어룡문경은 우리나라에만 보이는 새로운 유형인데, 꼭지가 등글고 문양이 매우 섬세한 점에서 고려에서 새롭게 창안되어 제작된 原鏡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름 15.4cm	지름 16.8cm	지름 18.3cm	지름 17.0cm	지름 17.2cm
중앙문화재연구원	국립춘천박물관	국립공주박물관	국립공주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
청주시 울량동 출토	춘천시 삼천동 출토	충주시 종민동 출토	부안군 봉덕리 출토	논산시 취암동 출토

도 11 출토지가 알려진 고려 황비창천명경



측면

내부

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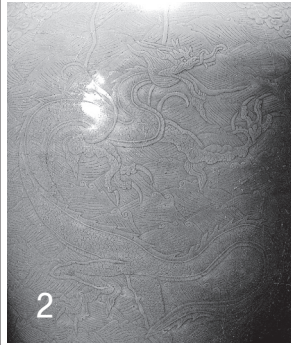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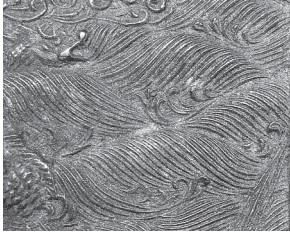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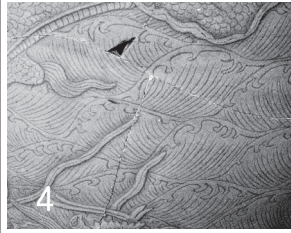


도 12 논산시 취암동 67 출토 청자발, 높이 6.0cm, 입지름 17.0cm, 바닥지름 5.6cm, 국립부여박물관

¹⁰ 황정숙, 앞의 논문(2006), p. 128.

일월해박어룡문경의 용·파도·구름 문양을 고려시대 금속·도자 공예품의 장식 문양과 비교하여 대략적인 제작 시기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일월해박어룡문경의 용 문양은 1177년 제작된 <표충사 청동은입사향완> 각부에 표현된 용 문양(표 1-1)과 매우 유사하다. 특히 크게 벌린 입, 네 개의 발가락을 짝 편 채 뻗은 한쪽 발, 머리 위 녹각을 닮은 2개의 뿔, 양쪽 죽지에 난 긴 털, 몸통의 비늘 그리고 세심하게 표현한 머리와 등의 털까지도 닮았다. 도자 공예품 중 삼성미술관 Leeum 소장의 <청자양각운룡문매병>(표 1-2)과 강진 사당리 가마터 출토 <청자양각운룡문매병편> 등 12세기경에 제작된 청자의 용 문양과 비교해도 세부적인 특징이나 앞으로 솟구치는 듯한

표 1 일월해박어룡문경과 고려 금속·도자 공예품의 도상 비교

구분	일월해박어룡문경	고려 금속·도자 공예품	
용			
파도			
구름			

1. <표충사 청동은입사향완>, 1177년, 표충사(필자 촬영)

2·3·5. <청자양각운룡문매병>, 12세기, 삼성미술관 Leeum(『삼성미술관 소장품선집, 고미술』, p. 32.)

4. <청자양각운룡문매병>, 12세기, 강진 사당리 가마터, 국립중앙박물관(『고려왕실의 도자기』, p. 62.)

역동성 면에서 거의 비슷하다.

파도 표현은 <청자양각운룡문매병>(표 1-3), 강진 사당리 가마터 출토 <청자양각운룡문매병편>(표 1-4), <청자음각용문두침> 등 12세기에 만들어진 청자에서 확인되는데, 마름모상의 파도 모양이라든가 끝이 살짝 말렸다가 다시 휘몰아치는 파도 거품과 비교된다. 그리고 肩部와 脚部에 작은 권운문이 모여 레이스처럼 드리워진 <청자양각운룡문매병>의 구름 문양(표 1-5) 역시 일월해박어룡문경의 구름과 유사성을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일월해박어룡문경은 고려 12세기에 제작된 금속이나 도자기의 문양과 흡사한 점에서 제작 시기는 대략 12세기경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IV. 불교적 해석과 용도

1. 불교적 해석

황비창천명경에 새겨진 마카라라든가, 동경에 새겨진 명문 ‘十王’은 불교적 요소로 이해된다. 크게 출렁이는 파도 속을 항해하는 한 척의 배와 용·마카라·대어 등의 수중짐승들은 무슨 일이 일어난 듯 긴박감이 넘치는 모습인데, 이는 바다의 액난과 그 구제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추정된다.¹¹

항해 중 겪는 여러 가지 액난과 그 구제에 관한 기사는 여러 불교경전에 나오는 내용으로, 『修行道地經』, 『大智度論』, 『雜譬喻經』, 『妙法蓮花經』, 『佛說七俱胝佛母心大准提陀羅尼經』 등에 ‘상인이 보물을 캐러 바다에 나갔다가 마카라와 같은 큰 고기를 만나 고난을 겪게 되지만 부처님의 도움으로 고난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서술된다(표 2).

표 2 불교경전 중 바다의 액난과 구제 기사

경전명	경전내용
『修行道地經』卷2 慈品 第6	“... 배를 타고 큰 바다를 다니다가 마갈어의 입을 향하게 되어 그 배가 고기의 뱃속에 들어가려 할 즈음 자비심을 내시어 그 배를 구제하시고 배가 금방 함몰하려는 순간에 사람과 보배를 건져주듯이...” ¹²

¹¹ 황비창천명경과 불교와의 관련성을 언급한 논문으로는 황정숙(앞의 논문, 2006, p. 125)과 장석오(앞의 논문, pp. 42-44)이 있다.

경전명	경전내용
『大智度論』卷7	“... 옛날에 5백 명의 상인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보물을 캐다가 마카라어왕을 만나게 됐다. 그 입을 여니 바닷물이 그 가운데로 들어가고 배가 쏜살같이 끌려 들어가는 난을 당하였다. ... 이에 사람들은 한마음으로 소리를 맞추어 ‘나무불’을 외쳤다. 이 고기는 ... 부처님을 부르는 소리를 듣자 마음이 저절로 뉘우치고 깨달았다. 곧 입을 다무니, 뱃사람들은 벗어날 수가 있었다.” ¹³
『雜譬喻經』 五百賈客入海求寶喻	“옛날에 5백 명의 장사꾼들이 있었는데 배를 타고 바다에 들어가게 되었다. 바다에서 마갈어를 만났는데 마갈어는 머리를 내밀고 입을 벌려 중생들을 잡아먹으려 하였다. ... 이 때 5백 인은 다 함께 큰 소리를 내어 나무불을 외쳤다. 고기는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 입을 다물어 버리자 물은 모두 거꾸로 흘러서 차츰차츰 고기와는 멀어지게 되었으므로 5백 명의 장사꾼들은 좋은 마음이 우러났고 모두가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¹⁴
『妙法蓮花經』卷7 觀世音菩薩普門品 第25	“혹 큰 바다에 표류하여 용·고기·귀신의 환난을 만나도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면 물결도 빠뜨리지 못하느니라.” ¹⁵
『佛說七俱胝佛母心 大准提陀羅尼經』	“만약 강이나 바다를 건너가려 할 때 誦呪하면서 건너가면 수중의 악한 짐승의 액난을 만나지 않을 것이며...” ¹⁶

西晋代(283) 竺法護가 번역한 『수행도지경』에는 長子(상인)가 큰 바다에서 마카라를 만나 배가 함몰되려 할 때 부처님께 빌어 어려움을 벗어났다고 한다. 後秦代(402~406) 鳩摩羅什이 번역한 『대지도론』에서는 오백 명의 상인이 바다에서 마카라왕을 만나 배가 끌려 들어가는 난을 당했을 때 염불삼매를 통해 그 재난을 벗어날 수 있었다고 나온다. 또 後秦代(405) 구마라집이 번역한 『잡비유경』에도 오백 상인이 바다에 들어가 보물을 구하는 비유 설화가 있는데, 그 내용은 『대지도론』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묘법연화경』에도 바다에 표류하여 환난을 당해도 관세음보살의 위신력으로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다고 하며, 당나라(8세기 중엽) 地婆訶羅가 번역한 『불설칠구지불모심대준제다라니경』에는 준제 신주를 염송하면 수중의 악한 짐승을 만나지 않는다고 한다. 경전 속 이야기의 서술 구조는 비슷한데, 바다의 액난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마카라를 지목하며 용·고기·귀신·악한 수중짐승들을 언급하기도 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한 경전이 당나라(8세기 중엽) 인도 출신 학승 不空이 번

¹² T606 15:189b22-24(‘T’는 『大正新修大藏經』의 수록번호, 이하 권: 쪽, 단락, 줄을 지칭).

¹³ T1509 25:109a13-24.

¹⁴ T207 4:529a18-b4.

¹⁵ T262 9:57c19-20.

¹⁶ T1077 20:185b29-c1.

역한 『普遍光明燄清淨熾盛如意寶印心無能勝大明王大隨求陀羅尼經』(이하 『대수구다라니경』으로 약칭함)¹⁷이다. 이 경전 중 ‘尾摩羅商이라는 長子가 바다에 보물을 캐러 나간 이야기’에 바다의 환난을 일으키는 수중짐승들과 구제 방편이 아주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① 장자가 商主가 되어 큰 배를 타고 보배를 캐러 바다로 나갔는데, ② 큰 바다 한가운데서 低彌魚¹⁸를 만나 배가 부서질 지경이었다. 게다가 ③ 바다의 용왕이 진노하여 큰 우레와 해일을 일으키고 우르릉거리며 번개를 일으키고, 금강우박을 내렸다. 그때 모든 상인들이 그 벼락과 우박을 보고 모두 걱정하고 괴로워하며, 큰 공포심이 생겨 큰 소리로 구해 달라고 외쳤으나 아무도 구해주는 이가 없었다. 그때 많은 상인들이 상주에게 가서 슬픈 목소리로 울면서 상주에게 말했다. “仁者이시여, 반드시 어떤 계책을 쓰시어 저희들을 구호하셔서,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때 상주는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의지가 견고하고 큰 지혜가 있었나니 모든 상인들이 공포에 떠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그대들 상인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와 강한 마음을 내시오. 내가 그대들을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겠소.” 그러자 그 모든 상인들이 용기와 강한 마음을 내고 다시 이렇게 말했다. “대상주이시여, 이 재난을 없애는 법을 속히 말씀해주셔서 저희들의 목숨을 보존하도록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상주가 곧 상인들에게 말하였다. “나에게 隨求陀羅尼라는 大明王이 있나니, 이것은 조복하기 어려운 이를 항복시키며, 큰 신통력이 있어서 그대들을 이러한 근심과 고뇌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는 곧 ④ 이 수구다라니를 베껴 써서 당찰(뚝대)에 놓았다. 그때 저미어가 배를 보니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광명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 다라니의 위력으로 지혜의 불이 그 저미어를 태우자 곧 저미어가 녹아 없어졌다. 모든 용들이 그 광경을 보고 나서 모두 자비한 마음을 일으켜 공중에서 내려와 널리 공양하고 그 배가 보물이 있는 곳에 곧바로 이르도록 하였다.¹⁹

이 경전의 내용은 황비창천명경에 묘사된 각 도상과 부합해 흥미롭다. 표 3을 보면, 『대수구다라니경』의 내용 중 ①~④는 황비창천명경의 배, 수중짐승, 구름에 둘러싸인

¹⁷ 이 경전은 2권 2품으로 구성되며, 大隨求陀羅尼經, 隨求經, 隨求陀羅尼經 등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상권에는 대수구다라니의 영험함을 서술하고 있는데, 이 다라니를 몸에 지니면 불에 타지 않고, 독이 해치지 못하며, 적을 항복시키고, 무간지옥을 깨뜨리며, 용과 물고기의 난을 없애고, 자식을 얻는 등 큰 위력이 있다고 한다 (望月信亨, 『佛敎大辭典』 卷4(世界聖典刊行協會, 1973), pp. 3291-3292).

¹⁸ timingila, 고대 인도의 대서사시 『마하바라타(Mahabharata)』에 나오는 거대 수중 생명체로 고래를 한 번에 삼켜버릴 수 있다고 한다.

¹⁹ T1153 20:621b11-c2.



도 13 배 고물 위의 인물들



도 14 돛대 위 등근 물체

용, 황비창천 명문 등의 도상과 일치한다. 특히 ‘수구다라니를 베껴 써서 돛대 위에 놓았을 때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광명이 빛나는’ 장면은 ‘황비창천(크게 빛나며 창성한 하늘)’이란 글귀로 나타냈는데, ‘광명’은 ‘다라니(부처님)의 위력으로 모든 재난이 사라지는 순간’을 상징한 것으로 보인다.²⁰ 이는 일월상이 있는 황비창천명경 중 고물의 인물들이 눈부신 듯 손을 이마에 올린 채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도 13)에서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 실제 황비창천명경의 돛대 위에 거울처럼 등근 물체가 표현되어 있어(도 14), 배의 돛대 위에 황비창천명경을 달아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였을 것이라고 상상해 볼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황비창천명경은 『대수구다라니경』 중 ‘상인이 보물을 캐러 바다로 나간 이야기’를 圖解한 것이며, 용·마카라·대어 등의 수중짐승은 ‘바다의 액난’을, ‘황비창천’ 명문은 ‘재난 구제’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수구다라니경은 중국 당대부터 크게 유행한 경전으로,²¹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유

²⁰ 徐兢, 『高麗圖經』 卷39, 海道6, 禮成港에도 “(바다에서 배가 위험에 빠졌을 때) 배에 탄 사람들과 머리를 짚고 슬프게 간구하였더니 상서로운 빛이 나타났다.”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서도 상서로운 빛, 즉 광명은 재난 구제를 상징한다. 한편, 중국 황비창천명경 중 문양 구성은 고려의 것과 똑같으면서 ‘황비창천’ 대신 ‘天下安昌’ 명문이 새겨진 것이 있는데, ‘천하안창’이란 글귀 역시 대수구다라니경의 위력으로 모든 재난이 사라진 후 천하가 안전하고 창성해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황비창천과 동의어로 볼 수 있다.

²¹ 중국 출토 대수구다라니의 예로는 陝西省 西安 西區 冶金機械地 唐墓의 〈佛說隨求即得大自在陀羅尼神呪經〉, 敦煌 莫高窟 藏經洞의 〈大隨求陀羅尼經咒〉(北宋 太平興國 5年, 980), 蘇州 瑞光寺塔 天宮의 〈大隨求陀羅尼經咒〉(北宋 咸平 4年, 1001)와 〈善遍光明燄鬘清淨熾盛思惟如意寶印心無能勝總持大明王大隨求陀羅尼經咒〉(北宋 景德 2年, 1005)가 있으며(宿白, 『唐宋時期的雕版印刷』(文物出版社, 1999), pp. 192-195), 遼代 朝陽北塔 地宮의 經幢에도 수구다라니를 새기는 등 대수구다라니경은 9세기 이후 동아시아에서 널리 유행한 경전이다(주경미, 『遼陽 朝陽北塔 出土 經幢 研究』, 『동악미술사학』 10(2009), p. 191).

표 3 『대수구다라니경』의 내용과 황비창천명경 도상의 비교

경전 내용	① 장자가 商主가 되어 큰 배를 타고 보배를 캐러 바다로 나갔는데,	② 큰 바다 한가운데서 低彌魚를 만나 배가 부서질 지경이었다.
황비창천명경 도상		
경전 내용	③ 바다의 용왕이 진노하여 큰 우레와 해일을 일으키고 우르릉거리며 번개를 일으키고, 금강우박을 내렸다.	④ 수구다라니를 베껴 써서 당찰(돛대)에 놓았다. 그때 저미어가 배를 보니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광명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황비창천명경 도상		

사]에 정신대왕의 아들 보천이 울진국 장천굴에서 수구다라니경을 밤낮으로 외었다²²는 기록과 해인사 길상탑(895) 내 안치된 4매의 塔誌磚 중에 백성사 앞 길상탑에 隨求則得大自在陀羅尼를 납입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로써 8~9세기에 이미 수구다라니경이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시문집인 『동문선』 중 고려 익재 이제현이 쓴 「금서밀교대장서」에 다라니는 그 뜻이 오묘하고 그 말이 신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독실히 공경하고 지극히 받든다는 기록이 있다.²³ 이를 보아 고려시대 다라니경의 유행과 더불어 함께 대수구

²² 『三國遺事』卷3, 塔像 第4, 臺山 五萬眞身, “寶川常汲服其靈洞之水, 故晚年肉身飛空, 到流沙江外 蔚珍國掌天窟 停止, 誦隨求陀羅尼.”

²³ 『東文選』卷85, 金書密教大藏序, “所謂陀羅尼者 中國之所不能譯也, 非惟中國爲然 自竺域之人 亦不得聞而解之, 以謂唯佛與佛 乃能知之, 蓋其義奧其辭秘 秘故不可聞 奧故不可解 不可解則人敬之篤 不可聞則人尊之至, 尊之至敬之篤 其感於人也必深矣 靈異之跡 亦宜乎多也.”

다라니경도 널리 유포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실제 광주 자운사 목조아미타불좌상 복장에서 〈如意寶印大隨求陀羅尼梵字軍陀羅相〉 1매,²⁴ 안동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복장에서 〈大隨求陀羅尼〉 19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목조관음보살좌상 〈大隨求陀羅尼〉 1매 등 13세기 불상의 복장물에서 대수구다라니가 나온 바 있어 이를 입증한다.

2. 용도

고려시대 동경은 일상생활용품, 불교 의례품, 고분 부장품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황비창천명경 역시 출토지가 알려진 5점의 동경을 통해 고분의 부장품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황비창천명경의 각 도상이 『대수구다라니경』 중 ‘상인이 바다에 보물을 캐러 나간 이야기’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황비창천 명문 사이에 ‘시왕’ 명문이 있는 동경(도 15)이 확인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된 후 무덤에 부장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황비창천명경과 시왕과의 관련성은 『대수구다라니경』에서 확인되는데, ‘상인이 바다에 보물을 캐러나간 이야기’ 바로 앞에 ‘무간지옥에 태어난 비구의 몸에 대수구다라니를 올려놓으니 지옥에서 고통 받던 모든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났으며, 이를 본 옥졸이 놀라 염마왕에게 보고했다는 이야기’²⁵가 있다.

이처럼 『대수구다라니경』과의 긴밀한 관련성을 볼 때, 황비창천명경은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거나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의 영혼 구제를 위한 불교적 의식에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여겨진다.

고려시대는 海運과 水運이 활발한 시기로 바다에서 기상 악화로 익사하거나 표류하는 사고가, 강에서는 여울·수초·토사 등으로 배가 좌초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였다.²⁶ 이에 따라 뱃사람들은 바다나 강에서 일어나는 선박 사고를 상



도 15 十王이 새겨진 황비창천명경, 지름 24.2cm, 국립전주 박물관(덕4927)(『고려동경, 거울에 담긴 고려 사람들의 삶』, p. 34)

²⁴ 大定 20년(1184) 고려국 중원부 제작.

²⁵ T1153 20:621a3-b7.

²⁶ 고려시대 조운 운영에서 조운선의 침몰과 같은 항해 안전사고는 중요한 문제로 끊임없이 제기되었는데, 『高麗史』 卷76, 食貨志2, 漕運에는 조운 운영과정에서 해난 사고 발생 시 사후조치 규정을 마련하였다(윤용혁, 「중세 관영 물류시스템, 고려 조운제도」, 『고려 뱃길로 세금을 걷다』(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09), pp. 124-125).

당히 두려워했으며, 이는 중국 송나라 주옥의 『평주가담』과 서공의 『고려도경』에 잘 나타나 있다.

(바다에서) 무서운 것이 鋸鯨인데, 길이가 자그마치 一百十丈이고 코뼈가 톱 같아 선박을 만나면 가로 톱 잘라 놓기 일쑤다. 또 멀리 고목이 산적한 것같이 보이는 것은 교룡이다.²⁷

무릇 배가 海門을 나가면 … 바람과 파도가 간간이 일어나고 우레와 비로 캄캄해지며, 교룡과 이무기가 출몰하고 신령한 물건이 변화를 일으키면, 가슴이 뛰고 담력이 없어져 할 말을 잃게 된다.²⁸

이러한 두려움을 없애고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면서 사찰에서 제사를 지내거나 배 위에서 간단한 소재의식을 치른 기록도 보인다. 송나라 서공 일행은 정해현 충지원에서 7일 동안 밤낮으로 도량을 열었고,²⁹ 창국현 심가문에서 비바람이 불자 산으로 가서 마당을 쓰고 岳瀆을 맡아 다스리는 신에게 제사를 지냈으며, 재앙을 떨치는 술법으로 나무를 깎아 작은 배를 만들어 거기에 불경과 말린 양식을 싣고 뱃사람의 이름을 쓴 것을 넣어 바다에 던졌다.³⁰ 매잠에서는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이 반드시 복을 빈다는 보타원에 들러 使者들이 기도를 드렸다.³¹ 그리고 주옥은 바다에서 거사나 교룡을 만나면 머리칼을 잘라서 고기비늘과 같이 불에 태워 조금조금 물에 가라앉히면 없어진다고 하였다.³²

한편, 고려의 <금산사 혜덕왕사진응탑비>에는 문종 33년 가을에 문종이 三重大師 韶顯을 불러 내전에서 법석을 베풀어 송의 사신이 무사히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기원하게 하였다³³는 기록도 있다.

이상의 기록을 통해 민간신앙뿐만 아니라 불교에서도 안전 항해를 기원하는 의식이 치러졌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충주 덕흥창 인근 강가에는 남한강을 오가는 선박의 안

27 朱彧, 『萍州可談』卷2, 舶船航海法, “…有鋸鯨長百十丈 鼻骨如鋸 遇舶船 橫裁斷之如拉朽尔. 舶行海中 忽遠視枯木山積 舟師疑此處舊無山 則蛟龍也.”

28 徐兢, 위의 책, 卷34, 海道1, “凡舫舶之行既出于海門…雷雨晦冥 蛟螭出沒 神物變化 而心悸膽落 莫知所說.”

29 위의 책, 招寶山, “…先期遣中使武功大夫容彭年 建道場於摠持院七晝夜.”

30 위의 책, 沈家門, “…風雨晦冥 雷電雨雹, 歛至移時乃止. 是夜就山張幕 掃地而祭. 舟人謂之祠沙. 實岳瀆主治之神而配食之位甚多. 每舟各刻木爲小舟 載佛經糗糧. 書所載人名氏 納於其中 而投諸海. 蓋禳厭之術一端耳.”

31 위의 책, 梅岑, “…使者率三節人. 以小舟登岸入梅岑…其深麓中有蕭梁所建寶陀院. 殿有靈感觀音 …自後海舶往來 必詣祈福 無不感應. …舊制使者於此請禱 是夜僧徒焚誦歌頌甚嚴 而三節官吏兵卒.”

32 朱彧, 위의 책, “…乃斷髮取魚鱗骨同焚 稍稍沒水中. 凡此皆危急 多不得脫.”

33 金山寺 慧德王師眞應塔碑, “太康五年秋 上命有司 於內殿大張法席 請師充說主者 爲大宋回使利涉大洋故也.”

전을 기원하며 강가의 절벽에 불상(도 16)을 조성한 고려시대의 사례가 확인된다.³⁴

또한 11~12세기 중국 문헌 기록에도 안전 항해를 위한 불교 의식이 나온다. 즉 광주 지역에서는 飯僧과 羅漢齋를 올렸고,³⁵ 바다를 지날때 축문을 올리면서 무사히 돌아가면 금으로 쓴 『維摩經』을 사례하겠다고 하거나,³⁶ 파도를 만나 위태로울 때면 佛書를 잘라 바다에 던지는 의식이 행해졌다.³⁷ 그리고 배 안에 불경과 패경의 권축을 안치하여 바다에 흘뿌리는 등 해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가 바다에서 치러졌다.³⁸ 일본 승려 圓仁의 『入唐求法巡禮行記』에도 안전 항해를 기원하면서 불경을 외우고 제물을 바치면서 부처님과 용



도 16 충주 창동리 마애여래입상, 고려 (정은우 촬영)



도 17 고려 황비창천명경 출토 현황과 조운로 (『고려시대 조운제도 연구』, p. 277 수정 게재)

34 문경호, 『고려시대 조운제도 연구』(해안, 2014), p. 75.

35 朱彧, 위의 책, “...凡此皆危急 多不得脫 商人重番僧 云度海危難禱之 則見于空中 無不獲濟 至廣州飯僧設供 謂之羅漢齋.”

36 孫升, 『孫公談圃』上卷, “呂相端奉使高麗 過洋祝之曰, 回日無虞 當以金書維摩經爲謝. 比回 風濤輒作 遂取經沉之 聞絲竹之聲起於舟下 音韻清越 非人間比 經沉隱隱而去.”

37 邵博, 『邵氏聞見後錄』卷28, “王子飛關文爲予言 吾使三韓 泛海每危於風濤 翦佛書以投 異物出沒爭奪以去 至投道書則不顧.”

38 何遜, 『春渚紀聞』卷2, 龍神需舍利經文, “元豐初 安壽厚卿陳陸和叔二學士 奉使三韓 濟海神舟 安貯佛經及所過收聚敗經餘軸 以備投散. 放洋之二日 風勢甚惡 海濤忽大洶湧 前後舟相失. 後舟載者俱見海神百怪 攀船而上 以經軸爲求. 先學軸付之 繼來者衆 度不能給 即拆經隨付之.”

왕, 신들에게 제사를 지낸 기록이 전한다.³⁹ 특히 제사 의식 가운데 ‘바다에 동경을 던져 넣는’ 특별한 의식이 행해진 점도 주목된다.⁴⁰

이상으로 황비창천명경은 『대수구다라니경』의 내용을 묘사한 것으로 추정해 보았다. 또한 뱃사람들이 바다에 나갈 때 안전 항해를 기원하면서 배의 돛대에 걸어두거나, 항해 도중 재난에 빠졌을 때 불교적 의식을 하면서 바다에 던져 넣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출토지가 알려진 황비창천명경은 모두 漕倉 및 水運이 이루어진 강가에서 출토되고 있는데(도 17), 아마도 선박 운송과 관련된 사람들이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요소이다.⁴¹

V. 맺음말

고려의 황비창천명경은 해박어룡문경, 일월해박어룡문경, 소문경 등으로 분류된다. 중국에서 기원한 해박어룡문경이 고려로 유입되고 이를 다시 되부어내는 과정을 통해 대량 생산되면서 크게 유행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일상과 월상이 새로 추가된 황비창천명경과 ‘황비창천’ 글귀만이 부각된 동경은 고려에서 창안된 原鏡으로, 이는 황비창천명경이 중국보다 고려에서 더욱 발전·확산되었음을 의미한다.

황비창천명경은 출토지를 알 수 없는 것이 대부분으로 정확한 제작 시기를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출토된 해박어룡문경의 공반 유물 분석이라든지 일월해박어룡문경과 고려시대 금속·도자 공예품에 표현된 문양과의 비교를 통해 대략 11세기 후반~12세기경 제작되고 유행하였을 것으로 분석해 보았다.

황비창천명경의 도상은 여러 불교경전 중 ‘상인이 바다에 보물을 캐러 나간 이야기’를

³⁹ 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卷1, “開成四年…四月十三日…上艇解除 兼礼住吉大神始乃渡海.”; “四月十四日…戌時爲得順風 依灌頂經設五穀 供祠五方龍王誦經及陀羅尼.”; “四月十五日…入夜祭五穀 供誦般若灌頂水經 祈神歸佛 乞順風.”; “四月十八日…令卜部祈禱神亦火珠一箇 祭施於住吉大神水精念珠一串 施於海龍王剃刀一柄 施於主舶之神以祈平歸本國.”

⁴⁰ 위의 책, “五月二日…風甚切行路 近磯不能即出…舶上祭天神地祇 亦官私絹纈纈鏡亦奉上 於船上住吉大神.”; 위의 책, 卷4, “會昌七年…九月八日…无風發不得船 衆捨鏡亦祭神求風 僧亦燒香爲當嶋土地 及大人小人神亦念誦祈願 平亦得到本國.”

⁴¹ 고려시대 漕倉의 주민들은 身役의 일환으로 선박 운송과 수군에 동원되었다(김덕진, 「고려시대 조운제도와 조창」, 『고려 뱃길로 세금을 걷다』(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09), p. 146). 따라서 강가 인근 분묘에서 출토된 황비창천명경은 뱃사람들이 생전에 안전 항해를 위해 사용하던 것을 사후 무덤에 부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묘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특히 『대수구다라니경』의 내용과 정확하게 부합된다. 이 경전의 내용을 통해 황비창천명경의 용·마카라·대어 등 수중짐승은 바다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즉 ‘海難’을 상징하며, 황비창천 명문은 대수구다라니를 베껴 돛대 위에 달았을 때 다라니의 위력으로 광명이 빛나면서 모든 재난이 사라지는 순간을 표현한 것으로 ‘재난으로부터의 구제’를 상징하는 글귀로 해석할 수 있다.

고려 11~12세기는 선박을 이용한 해운과 수운활동이 활발한 시기로 해난의 위험이 많았다. 당시의 문헌 기록에는 민간 신앙뿐만 아니라 불교적 해난 구제 의식과 관련된 내용이 확인되는데, 이를 통해 황비창천명경은 안전 항해를 기원하며 배의 돛대에 걸어두거나, 환난에 빠졌을 때 부처님과 바다의 신께 올리는 제사에서 바다에 던져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일월상이 있는 황비창천명경은 크기가 24cm가 넘는 대형에 문양이 섬세하고 조형성이 매우 뛰어난 뿐만 아니라 ‘시왕’이라는 명문도 확인되어, 안전 항해를 기원하고 바다에 빠져 죽은 영혼들을 구제하기 위한 불교 의식을 위해 고려에서 새롭게 창안된 유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확인된 황비창천명경은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출토지나 공반 유물이 알려진 예가 드물어 기원 문제라든가 제작 시기, 양식의 변화 및 발전 과정을 연구하는데 한계가 있다. 향후 발굴조사를 통해 더 많은 자료가 축적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Key Words)** 동경(銅鏡, bronze mirror), 황비창천명경(煌丕昌天銘鏡, Mirrors with the inscriptions of *Hwang-bi-chang-cheon*), 일상(日像, sun motif), 월상(月像, moon motif), 마카라(摩竭魚, Makara), 시왕(十王, Si-wang), 대수구다라니경(大隨求陀羅尼經, Mahapratīśara Vidyā Dharani), 해난 구제(saving from maritime calamities), 안전 항해(safe sailing), 불교 의식(Buddhist ceremony)

■ 투고일 2015년 5월 20일 | 심사개시일 2015년 5월 21일 | 심사완료일 2015년 5월 25일 ■

참고 자료 1 국내외 박물관 소장 고려 황비창천명경 현황

연번	소장기관	유물번호	형태	유물크기 (지름/cm)	출토지	공반유물
1	국립전주박물관	덕246	원형	16.7	개성 부근	
2	국립중앙박물관	덕607	팔릉형	17.0	개성 부근	
3	국립전주박물관	덕805	팔릉형	17.3	개성 부근	
4	국립대구박물관	덕3194	원형	24.4	개성 부근	
5	국립중앙박물관	덕4927	원형	24.1	개성 부근	
6	국립중앙박물관	本251-10	팔릉형	17.0	고려 고분	
7	국립중앙박물관	本2585	팔릉형	17.0	고려 고분	
8	국립중앙박물관	本2767	팔릉형	17.0	고려 고분	
9	국립중앙박물관	本4325-42	팔릉형	17.0		
10	국립중앙박물관	신445	팔릉형	16.5		
11	국립중앙박물관	신1358-37	팔릉형	17.0		
12	국립중앙박물관	신1358-41	팔릉형	20.0		
13	국립중앙박물관	신1358-44	팔릉형	16.8		
14	국립춘천박물관	신3784	팔릉형	16.8	춘천시 삼천동 산 11-2	송녕통보
15	국립중앙박물관	신6346	팔릉형	17.0		
16	국립중앙박물관	구입2198	팔릉형	17.2		
17	국립중앙박물관	기증5278	팔릉형	17.0		
18	국립중앙박물관	동원1806-1	팔릉형	16.3		
19	국립중앙박물관	동원1806-2	팔릉형	16.3		
20	국립경주박물관	경주1688	팔릉형	16.8		
21	국립경주박물관	국은402	팔릉형	16.9		
22	국립공주박물관	공주박840	팔릉형	18.3	충주시 종민동	
23	국립공주박물관	공주박419	팔릉형	17.0	부안군 봉덕리	
24	국립부여박물관	부여2151	팔릉형	17.2	논산시 취암동 67	청자발
25	강원대학교박물관	kmp01328	팔릉형	16.0		
26	경북대학교박물관	경500	팔릉형	17.1		
27	경주 동국대학교박물관	1073	팔릉형	16.5		
28	경희대학교박물관	100777	팔릉형	16.8		
29	계명대학교박물관	kmu387	팔릉형	16.3		
30	계명대학교박물관	kmu1269	팔릉형	17.3		
31	계명대학교박물관	kmu1270	팔릉형	16.2		
32	국민대학교박물관		팔릉형	17.2		
33	대구교육대학교박물관	8014	팔릉형	17.15		
34	동아대학교박물관	90	팔릉형	16.0		
35	부산박물관	구입171	팔릉형	16.5		
36	부산박물관	구입4606	팔릉형	16.5		
37	서울대학교박물관	역0033-1	팔릉형	16.2		
38	서울대학교박물관	역0033-2	팔릉형	16.9		
39	서울대학교박물관	역0033-3	팔릉형	16.5		

연번	소장기관	유물번호	형태	유물크기 (지름/cm)	출토지	공반유물
40	서울대학교박물관	역1484	팔링형	17.2		
41	서울대학교박물관	역2348	팔링형	16.8		
42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13909	팔링형	16.9		
43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sm2356	팔링형	16.5		
44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sm2519	원형	14.9		
45	숭실대학교박물관	IB0667	팔링형	16.8		
46	숭실대학교박물관	IB1440	팔링형	16.3		
47	숭실대학교박물관	IB1443	원형	14.5		
48	숭실대학교박물관	IB1666	팔링형	17.1		
49	영남대학교박물관	5257	팔링형	16.0		
50	영남대학교박물관	5287	팔링형	17.2		
51	영남대학교박물관	5390	팔링형	16.8		
52	원광대학교박물관		팔링형	17.2		
53	원주역사박물관	원주시립315	팔링형	15.9		
54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2	팔링형	17.0		
55	코리아나화장박물관		팔링형	17.0		
56	한남대학교박물관		팔링형	17.0		
57	해군사관학교박물관		팔링형	16.7		
58	삼성미술관 리움		팔링형	18.3		
59	중앙문화재연구원		원형	15.4	청주시 올량동 132호 토광묘	천성원보 희녕원보 승녕중보
60	모스크바 국립동양박물관		팔링형	15.7		
61	미국 보스턴미술관	9.176	팔링형	17.0		
62	미국 보스턴미술관	50.1434	팔링형	17.0		
63	미국 클리브랜드박물관	75.65.2	팔링형	17.1		
64	미국코넬대학교 허버트F존슨미술관	67.348	팔링형	16.7		
65	미국 호놀룰루 아카데미미술관	5428.1	팔링형	17.0		
66	독일 쾰른 동아시아미술관	cb09.14	팔링형	17.0		
67	일본 京都國立博物館		팔링형	17.0		
68	일본 天理大學 天理參考館		팔링형	16.6		
69	일본 泉屋博物館		팔링형	17.3		
70	일본 出光美術館		팔링형	15.8		
71	일본 東京人文教養學部 美術博物館		팔링형	17.0		

참고문헌

1. 사료

- 『經律異相』
『高麗圖經』
『高麗史』
『大智度論』
『妙法蓮華經』
『普遍光明燄鬘清淨熾盛如意寶印心無能勝大明王大隨求陀羅尼經』
『佛說七俱胝佛母心大准提陀羅尼經』
『三國遺事』
『邵氏聞見後錄』
『孫公談圃』
『修行道地經』
『入唐求法巡禮行記』
『雜譬喻經』
『春渚紀聞』
『萍州可談』

2. 도록 및 단행본

- 국립대구박물관, 『한국의 문양, 龍』, 2003.
국립제주박물관, 『항해와 표류의 역사』, 솔 출판사, 2003.
국립중앙박물관, 『佛舍利莊嚴』, 1991.
_____, 『고려왕실의 도자기』, 2008.
국립중앙박물관, 『고려동경, 거울에 닮긴 고려 사람들의 삶』, 2010.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고려 뱃길로 세금을 걷다』, 2009.
金潤顯, 『高麗時代 對外關係史 研究』, 경인문화사, 2004.
문경호, 『고려시대 조운제도 연구』, 혜안, 2014.
민계식 외 2인, 『한국의 전통 선박, 韓船』, 한림원출판사, 2012.
삼성미술관 Leeum, 『삼성미술관 소장품 선집, 고미술』, 2004.
이근명 외, 『송원시대의 고려사 자료』 1, 신서원, 2010.
李蘭映, 『高麗鏡 研究』, 신유출판사, 2003.

이진한, 『고려시대 무역과 바다』, 경인문화사, 2014.

정진술, 『한국의 고대 해상교통로』,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9.

장동익, 『高麗時代 對外關係史 綜合年表』, 동북아역사재단, 2009.

중앙문화재단연구원, 『청주 울양2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청주 울양동유적』I, 2011.

望月信亨, 『佛敎大辭典』卷4, 世界聖典刊行協會, 1973.

故宮博物院, 『故宮收藏-你应该知道的铜镜200件』, 紫禁城出版社, 2007.

郭玉海, 『故宮藏鏡』, 紫禁城出版社, 1994.

管維良, 『中国铜鏡史』, 重庆出版社, 2006.

广西壯族自治区博物館, 『广西铜鏡』, 文物出版社, 2004.

孔祥星·劉一曼, 『中国铜鏡図典』, 文物出版社, 1992.

_____, 『中國古銅鏡』, 文物出版社, 1992.

梅丛笑, 『以铜为鉴-中国古代铜鏡艺术』, 中图书店, 2012.

宿白, 『唐宋时期的雕版印刷』, 文物出版社, 1999.

旅順博物館, 『旅順博物館藏銅鏡』, 文物出版社, 1997.

王士伦, 『浙江出土銅鏡(修訂本)』, 文物出版社, 2006.

刘艺, 『鏡与中国传统文化』, 四川出版集团巴蜀书社, 2004.

赵力光·李文英, 『中國古代銅鏡』, 陝西人民出版社, 1997.

河北省文物研究所, 『歷代銅鏡紋飾』, 河北美術出版社, 1996.

3. 논문

高西省 著·윤보경 역, 「韓中 양국 출토 航海圖紋銅鏡 考察」, 『미술자료』 63, 1999, pp. 33-46.

김덕진, 「고려시대 조운제도와 조창」, 『고려 뱃길로 세금을 걷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09, pp. 136-149.

朴珍璟, 「金系 高麗鏡의 제작과 유통」, 『미술사학연구』 279·280, 2013, pp. 67-92.

安京淑, 「高麗 銅鏡 研究」, 한양대학교 박사논문, 2015.

윤용혁, 「중세 관영 물류시스템, 고려 조운제도」, 『고려 뱃길로 세금을 걷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09, pp. 114-135.

장석오, 「古代 經典에 나타난 마카라 문양의 系統과 意味」, 『불교미술사학』 16, 2013, pp. 39-72.

주경미, 「遼陽 朝陽北塔 出土 經幢 研究」, 『동양미술사학』 10, 2009, pp. 181-207.

하정숙, 「韓·日 銅鏡文化의 사머니즘적 성격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논문, 2010.

黃貞淑, 「高麗 銅鏡의 研究-編年試圖를 위한 基礎研究-」, 대구가톨릭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2000.

_____, 「高麗 中·後期 思想을 통해 본 銅鏡 文樣의 象徵의 研究」,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논문, 2006.

국문초록

황비창천명경이란 거울 뒷면에 ‘煌丕昞天’ 명문과 함께 ‘많은 사람을 태운 큰 배가 용·마카라·대어 등이 출몰하는 거친 바다를 향해하는’ 모습을 새긴 동경을 말한다. 고려 황비창천명경은 현재 71점이 전하며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동경을 다시 되부어내는 방법으로 주조한 바다·배·물고기·용이 등장하는 해박어룡문경, 여기에 일상과 월상이 추가된 일월해박어룡문경, 그리고 문양이 없는 소문경이 있다.

이 동경들은 출토품의 공반 유물 분석, 동시기 다른 공예품의 문양과의 비교를 통해 대략 11세기 후반~12세기경에 제작되고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황비창천명경의 도상은 다양한 불교경전에서 확인되는 ‘商人入海採寶’ 고사를 도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상인이 바다에 보물을 캐러 나갔다가 고난을 겪게 되지만 부처님의 도움으로 벗어나는 이야기’이다. 특히 『大隨求陀羅尼經』은 海難을 일으키는 수중짐승과 그 구제 장면이 매우 구체적으로 서술된 것이 중요한데, 황비창천명경의 각 도상과 정확하게 부합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예를 들어 황비창천명경의 주요 도상인 바다와 배라든가 용·마카라·대어 등의 수중짐승의 모습은 경전의 내용과 그대로 부합한다. 이는 ‘바다의 액난’을 상징하는 것이며 ‘황비창천’ 명문은 ‘대수구다라니를 베껴 돛대 위에 달았을 때 다라니의 위력으로 광명이 빛나면서 모든 재난이 사라지는 순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 황비창천명경이 제작된 11~12세기는 사신이나 경제 교류, 조세 운송 등에 선박이 크게 이용되면서 海運과 水運 활동이 활발했으며 이로 인한 바다로부터의 위험도 많았던 시기였다. 당시의 문헌 기록에는 항해 도중 위험에 처했을 때 배 위에서 간단한 소재의식을 치른 내용이 확인되며, 불경을 외우거나 불경 또는 동경을 바다에 던져 넣는 행위 등 안전 항해를 기원하는 불교 의식이 치러진 기록도 전한다.

황비창천명경은 활발했던 해상활동을 상징하는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유물로 추정된다. 안전 항해를 기원하며 배의 돛대에 걸어두거나, 환난에 빠졌을 때 부처님과 바다의 신께 올리는 제사에서 바다에 던져졌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특히 일월상이 있는 황비창천명경은 크기가 24cm가 넘는 대형에 문양이 섬세하고 조형성이 매우 뛰어난 고려시대 동경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시왕’이라는 명문도 확인된다. 아마도 안전 항해를 기원하고 바다에 빠져 죽은 영혼들을 구제하기 위한 불교 의식을 위해 고려에서 새롭게 창안된 유물이 아닌가 한다.

Abstract

The Iconography and Significance of Motifs on Goryeo Bronze Mirrors with the Inscription of *Hwangbichangcheon*

Jung Soo-hee *

The *Hwangbichangcheon* mirror refers to a type of bronze mirrors inscribed with the phrase(煌丕昌天, “superbly dazzling and flourishing sky”) and a motif of a large vessel with people sailing through the rough sea full of creatures like a dragon, *makara*, and large fish. Seventy-one mirrors of this type are extant, and they a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1) mirrors featuring the sea, a vessel, fish, and dragon, which were made by melting bronze mirrors from China and molding them; 2) those adorned with the sun, moon, sea, a vessel, fish, and dragon; and 3) those with only the inscription but no design.

An analysis of associated relics and comparisons with the design of other contemporary artefacts indicate that these bronze mirrors were produced and gained popularity during the late 11th and 12th centuries. The motifs on *hwangbichangcheon* mirrors presumably depict the ancient story of a merchant who bravely went to the sea in search of treasures. He came across obstacles in the process, yet he was able to overcome them with the aid of Buddha, a story found in a variety of Buddhist scriptures. Especially, the *Mahāpratisara Vidyā Dhāraṇī* (大隨求陀羅尼經) gives a detailed description of sea monsters that caused perils of the sea as well as describes a scene of overcoming the perils and being saved from them. It is significant that the *hwangbichangcheon* mirror motif and the story match exactly. For example, the sea and a vessel-the main motifs on the mirrors-or sea monsters such as a dragon, *makara*, and a large fish exactly coincide with the content of the scripture. These symbolize calamity on the sea, and the inscription of *hwangbichangcheon* is presumed to represent the moment when all

* Assistant curator, Busan Museum

the calamities disappear as the image of the *Mahāpratisara Vidyā Dhāraṇī* hangs high above the mast and sheds light around the world thanks to the power of the *dhāraṇī*.

During the 11th and 12th centuries, when *hwangbichangcheon* mirrors were produced, sea vessels were widely used for foreign envoy travel, economic exchange, and transportation of taxes, which led to more frequent maritime and river transportation with high risk of dangerous accidents. Relevant records have confirmed that simple ceremonies were held in order to drive away bad luck that might befall a vessel that was in danger during its journey. There are also records of Buddhist rituals and events in which people read Buddhist scriptures or threw bronze mirrors or scriptures into the sea as a wish for safe sailing.

Hwangbichangcheon mirrors are representative Goryeo artefacts that are presumed to symbolize the kingdom's vigorous maritime activities. As a wish for safe sailing, the mirrors may have been hung on a mast or thrown into the sea at a ceremony for Buddha and the sea god in times of hardship. In particular, the mirror with the sun and moon motifs, which is the most representative Goryeo bronze mirror, is large, exceeding 24 centimeters in diameter, and highly prominent with its delicate design. This mirror also has the inscription *si-wang*. Perhaps this is a new kind of mirror produced in Goryeo for a Buddhist ritual wishing for safe sailing and salvation for the souls who died at sea.